**사랑을 나누는 곰, 보로**

라파엘라 마리아 론디니 지음

깊은 숲 속에 사슴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사슴, 아빠 사슴, 그리고 아기 사슴 브릴은 운 좋게도 동굴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마른 풀과 나뭇가지들을 잔뜩 준비해야지. 그러면 눈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봄이 올 때까지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집 정리를 미처 다 끝내기도 전에 토끼 가족이 그 곳에 나타났어요. 엄마 토끼, 아빠 토끼, 그리고 디, 도, 두라는 이름을 가진 꼬마 토끼 세 마리였지요. 사슴들이 꾸민 동굴을 보자 엄마 아빠 토끼는 자기네들도 그 곳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토끼 부부는 아빠 사슴에게 공손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큰 집에서 겨우내 한 가족만 지낸다면 너무 심심하실 거예요. 우리를 동굴 한쪽 구석에서 살게 해 주신다면 친구가 되어 드리죠. 긴긴 겨울 밤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 드릴게요."

엄마 토끼는 잔뜩 아양을 떨었지요.

아빠 사슴은 처음엔 선뜻 내키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명랑한 토끼들과 함께 지내면 심심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토끼 가족을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었어요. 토끼 가족은 널따란 동굴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는 아늑하게 보금자리를 꾸몄지요.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동물 가족이 동굴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여우 가족이었어요. 엄마 여우, 아빠 여우, 꼬마 여우 빈니와 바니아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슴 아저씨. 이렇게 큰 피난처를 마련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군요. 우린 저쪽 숲속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집에 너무 습기가 차 지난 겨우내 아이들이 감기로 고생을 했답니다. 게다가 제 아내는 신경통까지 얻고 말았어요. 그러니 날씨가 가장 나쁜 기간만이라도 함께 지내면 안 될까요?"

아빠 여우는 엄마 사슴에게 눈웃음을 치며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아빠 사슴은 여우의 이야기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눈치 빠르고 영리한 여우와 함께 살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우 가족도 동굴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지요. 여우 가족은 동굴 다른 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얼마 후였어요. 이번엔 늑대 세 마리가 동굴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 늑대, 아빠 늑대, 아들 늑대 루이스였는데 루이스는 몸이 몹시 허약해 보였어요. 아주 말라깽이였지요. 게다가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어요. 아빠 늑대는 아양을 떤다거나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몹시 거만하고 위협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이 동굴은 우리 식구가 지내기에 적당해 보이는군. 그러니 우리도 함께 겨울을 나게 좀 실례를 해야겠소."

아빠 사슴은 겁쟁이는 아니었지만 늑대의 기분을 상하게 해 봤자 별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지요. 더구나 그렇게 무서운 동물과 함께 살면 다른 동물들의 행패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조그만 루이스가 어느 새 새끼 사슴과 친구가 되어 어울려 노는 것을 보자 아빠 사슴은 한숨을 내쉬면서 별로 내키지 않는 얼굴로 승낙하고 말았지요.

"좋아요. 당신들도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 보시오."

동물 가족들은 모두 동굴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각 다른 모퉁이에 한가족씩 자리를 잡은 거예요. 바로 그 때였어요. 아주 커다란 곰 한마리가 동굴 입구에 나타났어요. 그 곰의 이름은 보로였어요.

느릿하고 의젓하게 걷고 있었지만 어쩐지 몹시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오늘 저녁만 이곳에서 묵어가게 해 주시오.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소. 내가 늘 겨울잠을 자던 동굴이 무너져 어쩔 수가 없구려. 아내는 그만 동굴에 깔려 버렸고 아들 롤리는 놀라서 숲속으로 도망갔다가 길을 잃어 버렸다오. 그러니 오늘 하룻밤만 이곳에서 묵어가게 해 주시오."

갈색 곰 보로는 몹시 슬픈 표정이었어요.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았고 거만하게 굴지도 않았어요. 몸집은 컸지만 아주 조용한 성격이었지요. 게다가 슬픈 일을 당한 터라 낙심한 나머지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요. 무섭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정한 인상도 아니었어요.

"안 됐지만 곰 선생님, 이 곳에는 자리가 없는데요."

아빠 사슴은 갈색 곰 보로의 청을 점잖게 거절했어요. 빈니, 바니아, 디, 도, 두와 깡마른 루이스까지 아기 동물들은 전부 보로를 놀려 대며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였어요.

"어서 가, 덩치 큰 곰아! 우리 집엔 자리가 없어. 우리들만 지내기에도 자리가 좁단 말야!"

보로는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저으며 그 곳을 떠났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아기 사슴 브릴은 아빠가 하신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 동물에겐 우리 동굴에서 살라고 하시더니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쌍한 곰은 쫒아버리시다니...'

브릴은 즉시 엄마를 찾으러 달려 나갔어요. 엄마 사슴은 아직 군데군데 남아 있는 풀을 뜯어 모으고 있었어요. 브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엄마 사슴도 역시 아빠 사슴의 결정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빠 사슴에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지요.

아빠 사슴이 당황해하며 변명을 했어요.

"여보, 동굴 입구가 너무 좁아서 곰은 들어올 수도 없단 말이오."

"입구는 그리 힘들이지 않고 넓힐 수도 있잖아요?"

엄마 사슴은 다소 책망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빠 사슴에게 말했어요.

"도대체 그 곰을 집 안에 끌어들여서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이오? 다른 동물들은 다정하거나 아니면 무섭기라도 하지만 곰을 다만 심술궂고 건방지기만 할 뿐 아니오? 그러니 우리에겐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곰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곰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요. 정말 집이 필요한 동물은 곰이에요. 당신은 이랬다저랬다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주의자예요!"

엄마 사슴은 아빠 사슴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사슴이 몹시 화를 내자 아빠 사슴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우겨 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었지요. 엄마 사슴의 말이 옳았으니까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엄마 사슴은 평소에는 순했지만 일단 옳다고 생각한 것에는 양보가 없었어요. 아빠 사슴은 좁은 입구를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 동안 엄마 사슴과 브릴은 보로를 찾으러 숲속으로 뛰어갔어요. 겨우 보로를 찾아 낸 엄마 사슴은 보로를 설득하느라 한참이나 설명을 해야 했어요. 물론 브릴도 옆에서 거들었지요.

" 제 남편은 곧잘 불평을 늘어놓지요. 그렇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제말대로 하곤 한답니다."

엄마 사슴은 보로를 설득시켰어요.

마음씨 착한 보로는 엄마 사슴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그 날 밤만 그곳에서 지내겠다는 처음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갈색 곰 보로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다른 이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못하는 성미였어요.

밤은 몹시 추웠고 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동굴 안에는 많은 동물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는데도 어찌나 추운지 냉장고 안처럼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꼭꼭 껴안았어요. 그때까지도 동물 가족들은 서로 본체도 하지 않고 서먹서먹하게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특히 토끼 가족은 늑대가 무서워서 더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신경이 잔뜩 곤두서서는 조그만 일에도 막 화를 내었지요. 여우들도 토끼들은 깔보면서도 자기보다 힘센 늑대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빠 사슴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지요. 뭐니뭐니해도 자기가 이 동굴의 주인이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아빠 사슴은 다른 동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자기에게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곳에 들어오게 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동물들은 곰이 그 동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언짢게 생각했어요.

'하필이면 저런 동물이 우리랑 함께 있게 되었담?'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지요. 갈색 곰 보로는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가장 어두운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린 동물들은 보로를 놀려대느라 야단이었지요. 마침내 동물들이 모두 잠들자 보로는 잃어버린 아기 곰 롤리를 생각했어요.

'지금쯤 어디를 헤매고 다닐까? 잠은 어디 안전한 데서 자고 있을까?'

바윗덩어리에 깔려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눈물을 주루룩 흘리기도 했어요. 동굴 밖에선 바람 소리가 윙윙 났어요. 꼬마 사슴 브릴이 칭얼거렸어요.

"아이 추워!"

" 꼬마야 이리 오렴. 나는 털이 많아서 따뜻하단다. 널 춥지 않게 해 줄게."

보로가 브릴에게 말했어요. 브릴은 보로에게 다가갔어요. 브릴은 보로를 무서워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머뭇거렸어요. 그렇지만 보로가 다정한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자 보로의 따뜻한 가슴 속에 몸을 묻었어요.

다른 아기 동물들도 브릴이 보로의 큰 몸집에 푹 파묻힌 것을 보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모두 보로에게 왔어요.

"보로 아저씨, 우리도 좀 안아주세요."

아기 동물들은 자기들이 보로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진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보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놀리는 소리는 그냥 듣고 흘려 버렸으니까요. 꼬마들이 돌멩이를 던진 건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보다 더욱 힘이 세다는 걸 뽐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응, 너희들도 모두 이리 오렴."

아기 동물들은 모두 곰의 푹신푹신한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리고는 보로의 따뜻한 가슴 속에서 모두 포근히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 엄마 아빠 동물들은 아이들이 보로의 품 속에서 포근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보로가 동굴에서 함께 살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알게 된 거죠. 보로가 겨울 내내 따뜻한 난로가 되어 줄 거라는 약삭빠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모두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거고 더군다나 보로가 먹을 음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욱 잘된 일이었지요. 보로는 얼마 후면 겨울잠을 자게 될 테니까요. 엄마 아빠 동물들은 모두 보로에게 그 동굴에서 함께 살자고 설득했어요. 보로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냥 신세만 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 청을 받아들였어요.

몹시 춥고 긴 겨울이 시작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물 가족들은 조금씩 친구가 되었어요. 동굴 밖에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었으니 싫든 좋든 동굴 안에서 함께 살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마른 잎 한 무더기 때문에도 말다툼을 하곤 했지만 엄마 동물들은 금세 이야깃거리를 찾아냈어요. 아기들 이야기였지요. 아빠 동물들도 그 동안 살아온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느라 열을 올렸어요. 갈색 곰 보로는 구석진 곳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쿨쿨 겨울잠을 자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아기 동물들은 모두 보로의 품 속에서 잠이 들곤 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사이엔가 동물들은 모두 친구가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재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지루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사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린 롤리가 숲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데 지금쯤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면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곳곳에 친구가 많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숲속에 친구가 많아요."

늑대로 질세라 끼어들었어요.

"나도 친구는 얼마든지 있어요."

토끼도 말을 거들었어요

"날씨가 좀 풀리고 해가 길어지면 동굴 밖에 나가 주위를 좀 살펴보아야겠어요."

아빠 사슴이 말을 잇자 여우도 끼어들었어요.

"모두 함께 나갑시다. 숲 속을 샅샅이 누비며 각자 친구들에게 주위를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날은 마침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는 날이었어요. 아직 2월이었지만 햇볕 때문에 그리 많이 춥지는 않았지요. 아빠 동물들은 인사를 나누고는 친구들을 찾아 나섰어요. 아빠 사슴은 사슴 친구를, 아빠 토끼는 친구 토끼 가족들을, 여우는 여우 골짜기로, 늑대는 늑대 골짜기로 모두 친구를 찾아 나선 거예요.

"산사태로 엄마를 잃고 길에서 헤매다 아빠마저 잃어버린 새끼 곰을 찾는데 누구 혹시 본 적 없어요?"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결국 며칠 후 숲 속에 사는 모든 동물들은 길 잃은 아기 곰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금방 아기 곰이 찾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침내 움푹 패인 산기슭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기 곰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기 곰은 세상모르고 쿨쿨 겨울잠을 자고 있었지요. 동물들은 번갈아 가며 아기 곰 주위에서 망을 보아주었지요. 마지막 눈도 녹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마아가렛 꽃이 꽃봉오리를 피울 때가 되자 롤리는 부시시 잠이 깨었어요. 눈을 뜬 아기 곰은 많은 동물들이 주위를 에워싼 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네 아빠에게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꼬마야. 자, 우리를 따라오렴."

아빠 동물들이 앞장을 서고 롤리는 그 뒤를 따랐어요. 날씨도 이젠 춥지 않았어요. 숲 속의 오솔길을 따라 아빠 사슴의 동굴에 도착했어요. 조금 전 겨울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있던 보로는 아기 곰을 보자 정신없이 달려 나와 있는 힘을 다해 껴안았어요. 롤리도 마찬가지로 아빠 곰을 꼬옥 껴안았지요.

"아빠.... 아빠..."

보로는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너무도 고마워 눈물이 콧잔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을 보며 말했어요.

"친구 여러분,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아니에요. 보로.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지요."

아빠 사슴은 그 말을 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보로가 아기 곰 롤리를 안고 다른 동굴을 찾으러 떠나기 위해 동물 가족에게 인사를 하자 동물 가족들은 모두 울먹거렸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

아빠 사슴은 엄마 사슴에게 속삭였어요.

"이번 겨울처럼 뜻깊은 겨울은 처음이야. 곰 아저씨를 받아들이기를 잘했어,"

엄마 사슴은 아빠 사슴에게 다정하게 미소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눈을 꼭 감고는 아빠 사슴의 곁에서 잠이 들었어요.

사랑을 나누는 곰, 보로 문제 예시

1.동굴 안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게 되었나요? 동물 가족들을 소개하세요.

2.마지막으로 동굴을 찾아와 한 식구가 된 동물은 누구입니까?

3.보로는 어떻게 해서 이 동굴을 찾아오게 되었나요?

4.나는 보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아빠 사슴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5. 동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동굴처럼 우리들에게도 집이 있어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요.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좋은 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6.이야기 속 동물들 가운데 한 동물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써 봅시다.